

정교한 호법논리로 당 초기 '불도지쟁' 논파

<15> 당대의 불도논쟁과 이사정 거사

고구려 침공 실패로 불교를 중심으로 '삼교정립'을 이룩한 수조(隋朝)는 단명했다. 수 문제 충신이었던 이연(李淵)이 당조(唐朝)를 세웠다. 당대에 들어 남북조 이래 중국사상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불교는 다시 유·도 양교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했다. 더욱이 황가(皇家)의 성이 노자(老子; 李老聃)와 같다는 인식에서 당 황실은 도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 도교의 인물들이 주요관직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먼저 도교에서 불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당 건립 초기인 고조(高祖) 무덕(武德) 4년(621) 당시 태사령(太史令)으로 있던 도사 부희(傅奕)는 위진(魏晉) 이래 반불교적 인물들을 모아 <고식전(高識傳)>을 편집해 도교에서 불교를 공격했던 내옹정리를 통해 불교는 사람들을 철저히 기만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는 이를 근거로 고조에게 몇 차례에 걸쳐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부역을 회피하며, 부모를 모시지 않으며, 갖가지 악행을 전적으로 행하는 불교를 폐하라"는 내용의 상소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지만,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하다 법립 스님(572~640)을 찾아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법립 스님은 어려서 출가해 불교뿐 아니라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모두 통달했다. 도교에 입문해 도사로서 노장 현리(玄理)를 탐구했다가 다시 불문에 귀의해 '불도지쟁' 선봉을 맡아 <파사론> 이외에 <변정론(辯正論)> 등 수많은 논서를 찬술했다. 역경(譯經)의 필수(筆受)를 맡는 등 독특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거사가 도교에 심취하다 법립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거사도 역시 사상적인 여러 편력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불교의 진제(眞諦)를 만나 안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사의 현존 저술인 <내덕론> <광홍명집(廣弘明集)> 권15에 수록에서 충분히 엿보인다.

거사의 <내덕론>은 역대 중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호법(護法) 논서(論書)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덕론>은 <변혹(辯惑)> <통명(通命)> <공유(空有)>의 세편으로 구성됐다. 이를 <불법금방론(佛法



그림 · 김흥인

과 산천지리의 변화, 침술과 의학의 발상 등은 모두 육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들면서 육경은 다만 정치·사회윤리의 원칙만을 다룰 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무궁(無窮)'한 '한정된 가르침(局敎)'임을 지적했다. 거사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함에 결코 육경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다. 거사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 전통적인 가치의 인식체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거사는 동굴이나 움집에서 살고, 날것을 먹으며, 매듭으로 표현하던 것에서 주택에서 생활하고, 불에 익혀먹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함을 언급했다. 따라서 육경이 설정 불교보다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뛰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거사의 견해는 분명히 이전의 '불도지쟁'에서 나타난 논리보다 뛰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사의 <내덕론>에는 역시 불·유·도 삼교가 공존해야 한다는 '삼교정립론'이 보인다. 거사는 "불도에는 자비희사의 지킴이 있고, 불어(物)를 가지런히 해 친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을 평등하게 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인락하게 한다. ... 불교에는 신하에게 충성하도록 권하고, 자식에게 효행하도록 권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잘 다스리도록 권하며, 가정에는 화목을 권한다"고 설해 불교에도 유·도 양교의 가르침이 있음을 밝혔다. 거사는 "성인(聖人)의 가르침은 길은 달라도 같은 귀결점을 갖고 있다. 군자(君子)의 도는 서로 같아 다를 수 있어도 뜻은 합치한다"고 설했다. 이런 입장은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 본연의 포용성과 외래종교로서 중국에 전래되면서 '중국화' 과정을 거의 완성했음을 의미했다. 당연히 불교에서 '삼교정립', 혹은 '삼교일치' 등 주장은 불교를 중심으로 유·도 양교와의 공존 혹은 흡수를 전제한 것이다.

<내덕론>의 간략한 내용에서 거사의 논리가 이전의 호법논리보다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남북조시기에 벌어진 불도지쟁 탓도 있지만, 거사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기인했다. 특히 <공유편>에는 '진속원융(眞俗圓融)' 견해까지 보여 거사의 깊이가 엿보인다. 거사는 법수(法壽)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적인 <법명명의집(法門名義集)> <대장장> 54책 수록도 찬술했다. 아쉬운 것은 <내덕론>과 함께 찬술했다는 <정사론>은 현존하지 않는다.

당 초기 부희의 상소로부터 나타난 불도지쟁은 실제로 '폐불'까지 전개될 뻔한 위기상황이었다. 이때 법립 스님과 이사정 거사의 호법이 없었다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당대의 중국불교는 실제로 달랐을 것이다. 물론 스님과 거사의 노력으로 불도지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변역(變易)은 그 초기화가 전체적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극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도교 인사 관직 대거참여로 폐불 상소 줄이어 이사정 거사 '내덕론' 발간 '이하론' 등 반박

를 올렸다. 이로부터 당 건국 초기에 '불도지쟁(佛道之爭)'이 전개됐고 태종(太宗)·고종(高宗)의 삼대에 이르러서도 끝나지 않는 기나긴 논쟁으로 이어졌다.

부희의 상소는 바로 불교계의 반박을 받았다. 법립(法立) 스님의 <파사론(破沙論)>, 이사정 거사의 <내덕론(內德論)>, <정사론(正邪論)> 등이 대표적이다. 이사정 거사는 당시 동궁학사(東宮學士)의 관직을 이용해 태자 이연성(李建成) 등을 움직여 법립 스님의 <파사론>이 고조에게 상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 '폐불' 사태는 면했다. 당 초기 발생한 불도지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화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당대(唐代) 거사불교 시작을 알리는 이사정 거사와 그의 저술 <내덕론>을 소개한다.

이사정 거사 전기는 폐제정의 <거사전> 권13에 실려져 있지만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거사는 어려서 유학(儒學)과 도교에 전념했지만, 후에 어떤 인연으로 불교 전적을 읽고 점차로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됐다. 거사가 불교에 심취한 원인은

金湯編> 권8에서는 "변혹론"에서는 사된 것과 올바른 것을 잘 밝혔다. <통명편>에서는 화와 복이 서로 인연해 발생함을 잘 분별했다. <공유편>에서는 단(斷)·상(常)에 집착하는 견해를 잘 논파한다"고 평가한다. 물론 거사의 호법에 대한 입장은 <변혹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부희가 수차례 올린 '폐불' 상소에서 '이하론(夷夏論)'을 근거로 해 '오랑캐(夷) 가르침으로는 결코 중국인(夏) 습속을 교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하론'은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논리의 하나였고, 남북조시기 발생한 '불도지쟁'을 통해 이미 논파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이세 황조 후광으로 논점을 '민족정통성'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거사는 역시 남북조 이래 나타난 논리로서 논파했다. 흥미로운 것은 거사의 논리에 "중국인들은 무엇 때문에 서역 명마를 구하고, 남해의 명주(明珠)를 구하며, 아프리카의 상아, 페르시아의 약재 등을 구하는가. 만약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있어 약재가 중국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 야만 하는가."라는 재치가 엿보였다. 이것은 불교의 '묘한 도(妙道)'가 아니면 '살과 죽음(生死)'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희의 상소 가운데 불교 폐해를 지적한 것은 바로 역대의 왕조를 예로 들어 "삼왕(三王; 하·은·주의 우왕·탕왕·무왕)시기 불교가 없을 때는 태평성대였지만, 승려가 있어 정치가 가혹해졌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 역시 결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거사는 역시 역사적 실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특히 거사는 "왕조의 성쇠는 국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고, 통치가 잘되는가의 문제는 관

리들의 품성에 달려 있다"라는 비교적 거시적 관점도 보였다. 더욱이 거사는 불교가 흥성했던 수대(隋代) 왕조 역시 안정적이었고 민생도 화목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위반(고구려침공)해 멸망했음을 지적해 불교를 폐함은 왕조의 멸망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거사의 <변혹론>에는 또한 중국인들의 가치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나타난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진리'에 대한 표준을 흔히 <시경> <서경> 등의 육경(六經)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는 부희가 제시한 "불교의 가르침은 육경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결코 숭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론이다. 거사는 '천문현상의 신비함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청주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백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성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평주평서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사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배병연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기업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기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군수업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경기도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대전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충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욱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화	대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충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경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익	1974년생	177	대학원	영업	충남
최병익	196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김진혁	1974년생	160	초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박성준	1974년생	175	대학	회사원	인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업	경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충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전북
손순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장천석	1965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안상기	1965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정호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서울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훈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